

# ‘성장기록표’ 초등학교의 즐거운 변화

“듣는 이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말의 힘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비합리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름방학 시기를 맞아 초등 학교 자녀를 둔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변화된 생활기록표를 받아보고 호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폐지했던 중간·기말고사를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한 데 따른 변화다.

기존 생활기록표에는 일제식 지필평가로 치른 중간·기말고사 성

## 일제고사 폐지 후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

### 생활기록표에 학기 전반 활동사항 기재

적이 표시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수행평가 내용이 담겨있다.

일선 학교는 시험을 폐지한 대신 학생들이 꿈과 창의성을 키워가도록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답안교시는 학습태도와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개개인의 활동상황을 상세 기록하고 그 내용을 생활기록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생활기록표에는 각 과목 마다

3~6개의 평가내용이 서술형으로 기재돼 있고, 답안교사의 종합의견도 제시돼 학부모가 한 학기 동안 자녀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성적표 대신 ‘성장기록표’가 작성돼 시험 부담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교사들도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 과정 중심 평가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주 새별초등학교 강윤주 교사는 “단기간 치르는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 학생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혁신교육과 배현장학사는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었고 평가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며 “수업 개선과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수집하려고’ 모의권총 4정 훔친 3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모의권총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한 서바이벌게임용품 판매점에서 진열돼 있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권총 2정을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총 150만원 상당의 모의권총 4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서바이벌 게임을 즐겨하는 김씨는 모의권총을 소장하려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퍼짐한 옷을 입고간 뒤 벨트 사이에 모의권총을 넣고 판매점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모의권총을 집에 보관·수집하는 게 취미인데, 가격이 비싸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 경기 여주고교 성추행 피해 학생 75명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7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1~2년 동안 피해를 알리지 않았던 학생들까지 용기를 내 진술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여주 A고교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진수 조사를 벌여 피해 학생 75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학교에서 2·3학년 체육 교사와 학생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52)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 남학생 3명 등 모두 3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육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거나, 자신도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3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42)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55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14명은 두 교사에게 모두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여학생 72명, 남학생 3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을 3~4명으로 추정했으나, 신고 학생의 용기로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호소하게 됐고 진수조사까지 이뤄지면서 피해 학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진수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렸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그동안 성추행인지 인지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가 이뤄지면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 같다”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교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공원 벤치에 놓인 가방 훔친 30대 외국인 체포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공원 벤치에서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카지흐스탄 국적의 A(33)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B(46)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벤치 위에 있던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60대

서울 노원경찰서는 25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한 A(64·무직)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술을 마시고 위층에 살던 B(63·무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B씨와 층간소음으로 두 달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뽕문화중심도시사업 법적기반 마련” 촉구

### 광주문화단체

광주지역 문화단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계획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가 빠졌다”며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지역문화교류포럼재단·청년문화허브 등 지역 문화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만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단체는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연장과 조성사업 목표기간 연장, 7대 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약속했던 공약들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컨텐츠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로서로 변모시키겠다는 조성사업의 목표도 요원하게 됐다”며 “한국문화기술(CI)연구원 설립 약속도 빠져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이다”며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7대 문화권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의 시효연장과 조성사업 목표기간을 5년 연장해야 한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조성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단정의 직급 승격하고 추진단·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은 물놀이로 날린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11일째 폭염특보 광주·전남...31일까지 찜통더위 기승

### 온열질환자 광주 23명·전남 86명

11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31일까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광주 34.4도, 해남·나주 다도 34.1도, 담양 봉산·무안 운남·곡성 옥과 33.8도, 화순 33.4도, 광양 33.3도, 영암 33.2도, 함평·장성 3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았다.

광주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전남은 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 목포를 제외한 2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폭염특보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27~28일에는 오히려 기압의 영향으로 이날보다 낮 최고기온이 1~2도 가량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오는 31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영광·함평·해남·강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불쾌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인 8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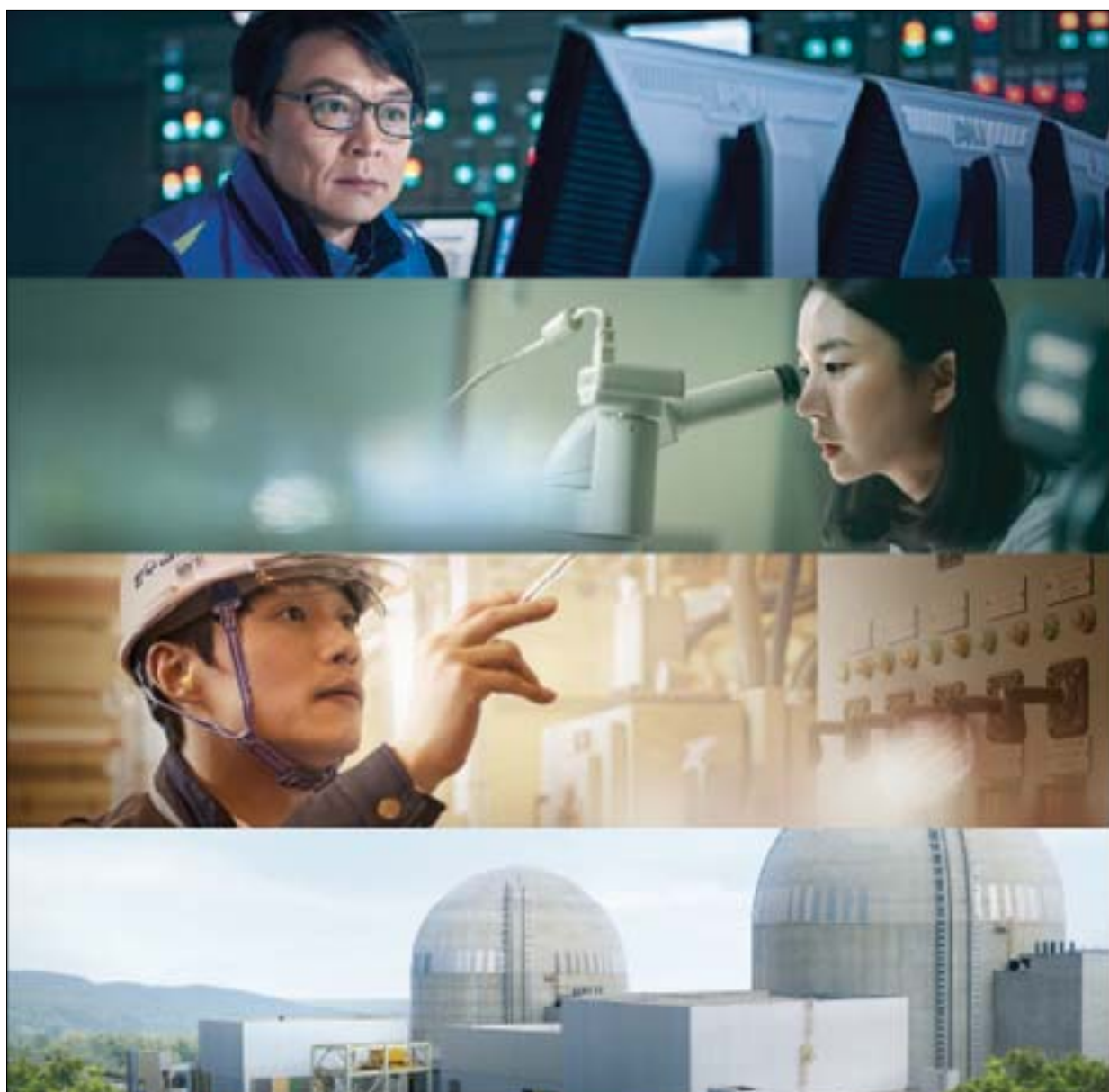
에 이르렀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31일 비가 내릴 때까지는 폭폭 찌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피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광주에서는 23명의 온열질환자(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의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8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도에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춘정 기자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